

작업치료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작업치료사들의 인식도 조사

김경미*, 이미자**, 이재신***, 이택영****, 강대혁****, 이경식****, 유은영*****

*인제대학교 의생명공학대학 작업치료학과

**삼육재활병원 재활치료팀

***건양대학교 작업치료과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삼성서울병원 작업치료실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Abstract

The Perspectives of Occupational Therapists on Introducing an Accreditation System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s

Kim, Kyeong-Mi*, Ph.D., O.T., Lee, Mi-Ja**, M.P.A., O.T.,
Lee, Jae-Shin***, M.P.H., O.T., Lee, Teak-Young****, M.P.E., O.T.,
Kang, Dae-Hyuk****, M.S., O.T.R., Lee, Kyoung-Sik****, M.P.H., O.T.
Yoo, Eun-Young*****,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Inje University

**Dept. of Rehabilitation Therapy, Sam Yook Rehabilitation Hospital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nyang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Hanseo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Samsung Medical Cente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이 연구는 한국작업치료교육인증위원회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교신저자 : 김경미(kmik321@inje.ac.kr) || 접수일: 2003.5.13 || 게재승인일: 2003.7.9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ttitudes of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s toward introducing an accreditation system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s.

Method : The self-administering written questionnaire was employed for this survey research.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reviewed by the Accreditation Board for the Education of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s and was composed of 18 items which included both closed-ended and open-ended questions.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s who attended at the 10th annual conference of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in October 2002.

Results : Among 106 respondents, 80.2% expressed their concern about the sudden increase of new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s and they believed that the curricula of new institutions and the quality of the institutes' graduates would be different. On the question of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accreditation system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s, 89.7% responded that it was necessary. All respondents agreed that clinical fieldwork experience was necessary and the preferred length was 16, 24, and 12 weeks in order. The areas to be included in the accreditation were the number of qualified professors, fieldwork hours, and the contents of curricula in order. 77.4% of the sample responded that they would trust the result and process of the accreditation.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 of the survey,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 majority of occupational therapists were concerned about improving quality of the profession rather than its quantitative expansion.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accreditation system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s would ensure the qualitative growth of occupational therapy profession in Korea.

Key Words : Accreditation,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I. 서론

대학 설립과 운영의 자율성과 교육의 다양성은 대학간의 질적 수준의 격차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대학평가 및 대학평가인증제가 개발, 시작되었다. 작업치료교육 환경도 최근 2~3년 사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00년 이전에 2개의 교육기관에서 현재 26개(김경미, 2003)의 교육기관으로 급진적인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초래하며,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과 교육의 질적 수준격차가 증가하며, 실습교육기관의 부족, 교수요원의 부족 현상 문제를 함께 가지게 되었다.

장기연(2002), 이택영과 김장환(2002)은 작업치료의 발전과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업치료 교육인증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평가인증(accreditation)은 비 정부적 조직에서 미리 설정된 기준에 의하여 개별대학과 대학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

정 여부를 결정, 공표하는 절차이다(Ratcliff, 1996). 미국 작업치료교육 인증위원회(The Accreditation Council for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ACOTE, 1999)는 작업치료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기준 및 지침을 제공하며, 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작업치료 임상에 필요한 작업치료사를 준비시키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작업치료 조직인 WFOT(2002)는 작업치료 교육의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작업치료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며, 그 결과 교육 프로그램을 인가 또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지지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구는 세계에서 작업치료교육의 질적인 발전 및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WFOT, 2003).

우리나라에서도 작업치료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작업치료 교육의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지지를 위하여 한국작업치료교육인증위원회를 발족하였다(김경미, 2003). 작업치료 교육프로그램의 최소 기준 마련을 위한 준비과제로 작업치료 교육과정에 관한 실태 조사, 실습교육기관의 실태조사 및 지침서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작업치료인증위원회에서는 우선 작업치료 임상가들을 중심으로 작업치료 교육인증제도의 도입에 관한 그 필요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며, 작업치료의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02년 10월 제 10회 대한작업치료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한 작업치료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 배포

와 회수는 동일 장소에서 직접 이루어졌고, 총 설문 응답자는 106명이었다.

2.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한국작업치료 교육인증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여러 차례 수정 보완하였으며, 총 1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문항들은 응답자의 일반적 정보에 대한 문항,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에 대한 문항,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에 대한 의견에 대한 문항, 임상실습에 대한의견에 대한 문항, 인증평가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인증평가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중복 응답을 가능하게 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 교육기관 인증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통계량인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의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1.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8.7세로 30세 미만이 전체응답자이 67%, 성별은 여성이 86.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평균경력은 5.4년이었고, 5년 미만이 전체응답자의 63.2%를, 근무분야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이 47.2%, 근무지역은 서울과 경기지역이 전체의 69.8%, 근무영역은 성인영역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76.3%였다(표 1).

표 1. 임상치료사의 인구학적 정보

N=106

변수	구 분	대상자수(명)	백분율(%)	평균
나이	21~25세	38	35.8	
	26~30세	37	31.2	
	31~35세	22	20.7	
	36~40세	9	8.5	
	41~45세	4	3.8	
	평균			28.68세
성별	남	14	13.2	
	녀	92	86.8	
임상경력	2년 미만	45	42.5	
	2~5년 미만	22	20.7	
	5~10년 미만	26	24.5	
	10년 이상	13	12.3	
	평균			4.48년
최종학력	전문대졸	29	27.4	
	대학졸	58	54.7	
	대학원졸	17	16.0	
	무응답	2	1.9	
근무분야	대학병원	29	27.4	
	종합병원	21	19.8	
	준종합병원	5	4.7	
	재활원	7	6.6	
	복지관	18	17.0	
	개인병원	2	1.9	
	교직(대학)	5	4.7	
	기타	19	17.9	
근무지역	서울	43	40.6	
	경기도	31	29.2	
	충청도	14	13.2	
	강원도	3	2.8	
	경상도	10	9.4	
	전라도	5	4.7	
	제주도	0	0	
근무영역 (중복선택 가능)	성인신체	64	60.4	
	성인정신	17	15.9	
	소아신체	53	50.0	
	소아정신	29	27.1	

표 2. 교육기관 증가에 대한 의견

N=106

변수	구분	대상자수(명)	백분율(%)
교육기관증가에 대한 의견	긍정적	15	14.2
	부정적	85	80.2
	모르겠음	5	4.7
	무응답	1	0.9
각 학교 졸업자 들의 자질에 대 한 의견	같음	4	3.8
	다름	94	88.7
	모르겠음	8	7.5
각 학교 교과과 정에 대한 의견	같음	1	0.9
	다름	93	87.7
	모르겠음	12	11.3

2. 작업치료 교육기관 증가에 대한 의견

임상 작업치료사들의 교육기관 증가에 대한 의견은 전체의 80.2%가 부정적이라고 답하였고, 이에 따른 각 교육기관의 교과과정 및 졸업생들의 자질도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각각 87.7%, 88.7%였다(표 2).

3.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

인증제도에 관한 응답자들의 의견은 필요성 부분에 전체의 89.7%가 필요하다는 응답하였고, 인증제도가 완성될 경우 이에 대해 신뢰하겠다는 의견이 77.4%로 매우 높은 분포를 보여 주었다.

표 3.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

N=106명

변수	구분	대상자수(명)	백분율(%)
협회주간 인증평가의 필요성 이해도	이해함	89	84.0
	이해하지 못함	4	3.8
	모르겠음	10	9.4
	무응답	3	2.8
인증제도 필요성	필요함	96	89.7
	필요 없음	0	0
	모르겠음	6	5.6
	무응답	5	4.7
인증평가에 대한 신뢰	신뢰함	82	77.4
	신뢰하지 못함	4	3.8
	모르겠음	17	16.0
	무응답	3	2.8
인증평가 사용 방법 (중복선택 가능)	치료사 선발시	84	79.2
	학교선택시	41	38.7
	기타	5	4.7

표 4. 임상실습에 관한 의견

변수	구분	대상자수(명)	백분율(%)
임상지도 경험	없음	43	40.6
	1~2개 학교	40	37.8
	3~4개 학교	16	15.1
	5~6개 학교	7	6.6
임상실습의 필요성	필요함	106	100
	필요 없음	0	0
	모르겠음	0	0
임상실습 기간	4주	3	2.8
	8주	7	6.6
	12주	29	27.4
	16주	35	33.0
	24주	31	29.2
	무응답	1	0.9
국가고시 응시 필수 조건	필수임	99	93.4
	필수가 아님	4	3.8
	모르겠음	3	2.8

인증평가 결과의 사용방안에 대하여는 치료사
선발시, 학교선택시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견이 각
각 79.2%, 38.7%로 나타났다(표 3).

4. 임상실습에 대한 의견

임상실습에 관한 임상 작업치료사들은 교과과정
에서 필요하다는데 100%의 의견 일치률을 보였고,
국가고시 응시조건이 되어야 의견이 93.4%였다. 임
상실습 기간은 12~16주가 전체 응답자의 60.4%,
24주가 29.2%, 8주 미만이 9.4%로 나타났다(표 4).

표 5. 인증평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전체 응답자 수 106명)

내용	선택한 응답자 수(명)	백분율(%)
전공 관련 교수 수	87	82.1
임상실습 시간	87	82.1
교과목의 학습내용	85	80.2
교과과목	84	79.2
교수 임상경험 유무	83	78.3
세계작업치료연맹 최소기 준 채택여부	77	72.9
학교 실습도구	73	68.9
임상실습내용	73	68.9
평가도구 종류	70	66.0
실습지도선생의 적합성	59	55.7
임상실습기관	59	55.7
교수 연구 업적	59	55.7
치료도구	51	48.1
교수의 학위	49	46.2
학교 내의 치료실여부	45	42.5
도서관 전공서적 보유수	45	42.5
학생학술활동	37	34.9
실습비의 책정규모	31	29.2
학생봉사활동	31	29.2
실습실의 크기와 규모	29	27.4
졸업생 국가고시 합격률	25	23.6
강의실	24	22.6
강의보조도구	23	21.7
졸업생의 취업률	19	17.9
장학금	13	12.3

※ 중복응답허용

5. 인증제도에서 다루어야 할 평가내용

인증제 도입시 다루어야 할 평가내용으로는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얻은 결과로 전체회원의 70% 이상 응답한 내용은 전공 관련 교수수, 임상실습시간, 교과목의 학습내용, 교과과목, 교수의 임상경험 유무, 세계작업치료연맹 최소기준 채택여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25% 미만으로 응답한 항목에는 졸업생의 취업률, 장학금, 강의보조도구, 강의실 등으로 나타났다.

IV. 고 찰

본 연구는 작업치료 학과 신설의 급증에 따른 작업치료의 학문적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임상 작업치료사들의 인증제에 관한 인식도를 분석하고자 시작되었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임상 작업치료사들은 급격하게 신설되는 대학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 필요성에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력수급 현황은 과거 5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 5년전에는 작업치료사 인력수급 부족으로 인하여 적정수준의 작업치료사 양성이 요구되었으나 2003년 현재 작업치료사 인력수급은 과잉공급이라는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신설되는 대학과는 달리 적정수준의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수요원, 실습기자재, 실습여건, 교과과정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서 향후 작업치료사의 질적 저하 및 수요와 공급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이미자, 2002). 이에 따라 향후 작업치료 전문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문제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업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일환으로 작업치료 인증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이택영과 김장환, 2002; 장기연; 2002).

본 연구는 한국작업치료인증위원회 사업의 일환인 임상가, 교육자, 학생들의 다양한 인증제에 대한 의견을 모색하는 방안의 하나로 우선 임상작업치료사에 국한하여 인증제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9.8%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작업치료사들의 일부 수도권 선호도를 반영하는 결과와 작업치료기관이 이에 비례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전체응답자의 60.4%가 성인의 신체장애 영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기능 부분과 관련하여 작업치료사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업치료 교육기관 증가에 대한 임상 작업치료사의 의견은 80.2%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였고, 이에 따른 교과과정 및 졸업자의 자질이 서로 다르다는 의견이 각각 87.7%, 88.7%로 높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볼 때 기존의 작업치료사들은 급증하는 신설대학과 이에 따른 작업치료사들의 자질 격차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치료 교육기관 인증평가와 관련한 문항에서는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7%로 나타났고,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77.4%로 높은 신뢰를 하겠다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의 임상작업치료사들이 작업치료 인력이 적정수준의 자질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교육 과정 중 임상실습에 관한 필요성은 응답자 전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고, 적정한 임상실습기간을 12-16주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는 작업치료 학문의 특성상 임상경험의 중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고, 현행 작업치료 임상실습이 8주-24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세계작업치료 연맹의 기본시간인 1,000시간과 국내 임상실습의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증평가에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우선순위로 전공 관련 교수수, 임상실습시간, 교과목의 학습내용, 교과목, 교수의 임상경험 정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답변은 작업치료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현재 작업치료 신설대학의 급증과 함께 교수요원의 부족이 작업치료 인력양성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 더불어 충분한 국내 임상실습 기관의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증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그 중요도가 낮은 것들로는 강의실, 강의보조 도구, 졸업생 취업률, 장학생 등으로 작업치료의 학문적 특성과 거리가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었다.

위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임상 작업치료사들의 높은 인증평가에 대한 필요성과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임상 작업치료사에 국한된 의견이므로 모든 작업치료와 관련된 대상에게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을 담당할 교수요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정보를 얻은 것으로 기대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02년 대한작업치료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임상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여, 이중 설문문에 응답한 106명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설문 응답자의 80.2%가 신설대학 급증에 대하여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고, 신설되는 대학간의 교과과정 및 이에 따른 졸업생의 자질도 다르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른 인증제 필요성에 여부를 묻는 문항에 89.7% 이상이 인증제의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임상실습에 대한 의견은 100%의 응답자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고, 실습기간은 16주, 24주, 12주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인증평가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는 전공관련 교수수, 임상실습시간, 교과목의 학습내용 순으로 의견이 나타났다. 또한 인증제가 실시 후 평가내용에 대한 신뢰성은 77.4%가 그 결과를 신뢰하겠다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임상 작업치료사들은 급증하는 신설대학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으며, 보다 질적인 교육과 작업치료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평가제가 실시된다면 한국 작업치료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김경미. 한국작업치료교육인증위원회. 대한작업치료협회신문, 2003.
- 김경미. 한국 작업치료 교육기준을 위한 기초조사. 대한작업치료교수협의회 세미나 자료집, 2003.
- 이미자. 우리나라 작업치료사 인력양성 실태 및 문제점.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002;10:181-186.
- 이택영, 김장환. 우리나라 작업치료교육기관의 정량적, 정성적 지표(교육환경 중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002;10(2):171-180.
- 장기연. 작업치료교육프로그램 인증평가제도 연구: 미국제도를 중심으로.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002;10:143-152.
- Accreditation Council for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ACOTE) of The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Standards for an accredited educational program for occupational therapist. Am J Occup Ther 1999;53(6):575-582.
- Ratcliff JL. Assessment, Accreditation, and

Evaluation of Higher Education. Quality in
Higher Education. vol.2. 1996.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Guidelines for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Process for
Approval of Educational Programmes (first
draft). 2003.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Revised Minimum Standards for the
Educ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02.